

제15회 自然公園 세미나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내무부」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후원



국립공원협회가 주최한 제15회 자연공원세미나가 10월 19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을 이루었다.

서울정도 600년 기념행사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는 내무부,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동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분야의 전국 행정요원과 본회 각지부 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개회사를 하는 李賢宰 회장

“高度文化國家건설과 자연공원”을 테마로 한 세미나는 국민의례에 이어 본회 李賢宰회장의 개회사가 있은다음 내부부장관의 격려사를 李孝桂차관이 代讀하였고 한양대 명예교수 金容雲박사의 “自然과 文化”라는 연제의 기조 강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제1주제 “문화공간으로서의 자연공원 활용방안”(관리공단 鄭權燮 소장) 제2주제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Eco-Tourism化의 實際”(서울大 金貴坤 교수) 제3주제 “이용자 만족도에 준거한 국립공원 관리의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영남大 朴贊龍교수)순으로 主題발표가 있었으며 약2시간 가량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종합토론의 “코디네이터”는 본회 吳輝泳 학술담당 부회장이 담당하였으며 본회부설 자연자원 연구소장 邊雨燮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 第15回 自然公園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李현재 國立公園協會 會長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연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원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對内外 與件變化에 對應하여, 우리나라 자연공원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進路에 대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有益한 機會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 지구상에는 무분별한 개발과 비생산적인 소비형태로 인해 심각한 環境危機 (environmental crisis)를 맞고 있습니다.

環境問題는 이제, 어느 特定國家나 特定地域에 局限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세계 각국은 국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유산으로 삼아 그 原形의 保存과 管理에 많은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100여년 전 美國에서 출발한 國立公園制度는 이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 제도르 採擇하게 되었으며, 각국의 국립공원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堡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7년 國立公園制度를 導入하여 그동안 管理體系나 公園施設의 擴充, 그리고 국민의 利用擴대등 다양한 측면에서 改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國立公園 樣態나 국민의 期待水準등에 비추어 볼때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自然公園의 「保存과 適正한 利用」이라

崔炯佑 內務部長官
激 勵 辭 (要旨)



격려사를 대독하는 李孝桂 차관

국립공원협회 회원및 自然公園 關係者 여러

는 서로 상충되는 目標達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새로운 政策課題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政府의 自然公園 政策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공원관리에 있어서 保存爲主의 管理基調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세대는 물론 우리의 후손인 장래의 세대까지 쾌적한 公園利用이 가능하도록 「自然環境을 保存하면서 적절한 開發」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공원에 적합한 休息·探訪 空間을 적절히 擴充해 나가면서 公園 資源의 保存을 제고 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自然公園에 不適切한 여가시설은 가급적 排除해 나가면서 필요할 경우, 公園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施設配置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國民餘暇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公園별로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公園管理體制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時急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公園管理廳의 公園관리 인력을 양적으로 擴充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行政·財政上은 물론, 法的·制度的인 측면에서도 다각적인 公園管理能力의 補强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탐방객에 대한 便宜提供등 서비스 측면에서 公園내 거주 주민들에 대한 각종 規制를 합리적으로 再調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公園區域과 公園내 用途地區에 대해 그 妥當性を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적인 公園探訪文化를 정착시키는 데도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自然公園의 管理는 그 廣範圍한 관리면적과 다양한 관리대상으로 인해 탐방객 개개인의 협조없이 適正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간주도의 自然保護, 자연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公園내 질서유지와 단속업무를 전담할 「公園警察制度」를 導入하여 公園내 불법·무질서에 대해서는 「基礎秩序確立」차원에서 계도 및 지도·단속을 더욱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國立公園을 비롯한 自然公園이 “먹고 마시고 노는 공간”이 아니라, 國民의 情緒涵養과 自然學習, 쾌적한 休息空間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대대적인 啓導와 弘報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公園 관계자 여러분!

우리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新韓國創造」는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문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 국가의 중요한 「바로미터」는 바로 국민의 여가생활이 얼마나 건전하게 이루어지느냐, 또한, 쾌적한 自然環境의 보존관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自然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대자연에 접근하는 진정한 인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自然사랑 정신이 한층 더 북돋아 지고, 자연공원이 전국민의 사랑과 아낌을 받는 정서함양의 공간으로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